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2012년 농수산식품분야 R&D 투자계획
향후 5년간 고추·마늘 등 발작물 기계화에 총력 집중

기획 정보

한중 FTA 논의 가시화, 첫 공식 절차 착수
2012년 경제정책과 중점 추진과제

거시경제 동향

2011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

농정 여론 동향

농촌 현장 여론(KREI 리포터 현장의 소리)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농촌관련 제도
FAO,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주요 농정 이슈_1

2012년 농수산식품분야 R&D 투자계획

※ 본 자료는 2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정현안 해결, 미래성장동력 창출 등 방향성 있는 농수산식품분야 R&D 투자 1,522억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R&D 투자 확대

○ '12년부터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골든시드프로젝트,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융자금)** 등을 신규 추진하고 **투자규모도 확대**

- (R&D 사업비) '12년 농식품부 R&D 투자규모는 **1,522억원**('11년 1,344)

※ 농식품기업의 우수기술 사업화를 위한 “우수기술사업화자금” 별도 지원(1,000억원)

<2012년 R&D 사업별 투자비>

구분	'11년(억원)	'12년(억원)	전년 대비 증감률(%)
	집행	투자(전년 이월액)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538	532(9)	-1.1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176	201(1)	14.2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168	197(7)	17.3
융복합연구센터지원	30	30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77	82(2)	6.5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248	291(1)	17.3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107	126(7)	17.8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	40	순증
골든시드프로젝트	-	23	순증
소계	1,344	1,522(27)	13.3
우수기술사업화자금(융자금)	-	1,000	순증

□ 신규 투자방향

- '12년 민간 R&D 지원예정액(1,522억원) 중 신규 투자는 541억 원
- 신규투자액은 지정공모과제(Top-down, 60% 수준)와 자유응모과제(Bottom-up, 40% 수준)로 구분하여 지원 예정
- (지정공모과제) “할 수 있는” R&D보다는 “해야 하는” R&D 추진
 - 농정현안 해결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R&D 집중 투자

- (자유응모과제) 중점지원분야 지정·공모를 통해 정책 부합성 강화
 - 미래 성장동력 창출 중심으로 지원하여 농식품분야 연구인력 강화를 통한 연구인력 인프라 구축
- '12년 신규 사업으로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골든시드프로젝트, 우수 기술사업화자금(융자금) 지원 등 추진
 - (가축질병기술개발사업)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형가축질병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지원(40억원)
 - 가축질병 예방, 진단, 검역 및 확산방지 등 전 분야 지원
 - (골든시드프로젝트)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 종자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품종육성(총사업비 4,911억원, '12년 예산 23억원)
 - (우수기술사업화자금) 우수기술의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여 사업화융자금(1,000억원, 3%, 2년거치 3년상환, 10억원 내) 지원
 - 농림수산식품 장관이 확인(인증)한 우수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농업법인 등에 지원
 - 농림수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시제품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으로 활용

□ 제도 개선방향

- (연구과제 정책 부합성 강화) 연구과제 전단계에서 정책부서와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정책 부합성 강화
- (클러스터형 연구 강화) 실질적으로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연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유도
- (수요조사 창구 다양화) 농어업현장 및 다양한 분야의 수요조사가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으로 수요 조사방식 개선
- (맞춤형 연구성과 목표관리제 도입) 사업별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한 평가체계 구축 등 성과 중심 전주기 관리
- 기타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 www.fris.go.kr) 활성화, 연구비 관리, 평가체제 정비 등 개선

주요 농정 이슈_2

향후 5년간 고추마늘 등 밭작물 기계화에 총력 집중

※ 본 자료는 2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밭농사도 이제 기계화를 해나간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주요 내용

○ 제7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12~'16) 수립·발표

- (비전)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업기계화

○ 본 계획은 농업기계화 정책의 목표로 밭작물 기계화를 제고와 수출 확대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추진

- 고추·마늘·콩 등 품목별 전용 농기계 개발과 기존에 개발된 농기계에 대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밭작물 기계화율을 2016년까지 65%로 향상

※ 밭작물 기계화율 목표: ('10) 50% → ('16) 65 → ('20) 70

· (고추) 2017년까지 주산단지 23개소에 고추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해 기계화율을 '17년까지 60%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

※ 고추 기계화율 추진 목표: ('10) 46% → ('17) 60 → ('20) 70

※ 고추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누계): ('12) 2개소(봉화, 고창) → ('15) 12 → ('17) 23

· (마늘) 2017년까지 마늘 주산단지 15개소에 마늘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해 '17년까지 70%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

※ 마늘 기계화율 추진 목표: ('10) 57% → ('17) 70 → ('20) 80

※ 마늘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누계): ('12) 3개소(고흥, 창녕, 서귀포) → ('15) 10 → ('17) 15

- 농기계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출 전략형 농기계 개발 및 ODA사업과 연계한 농기계 수출 등을 통해 2016년까지 농기계 수출을 12억 달러로 확대

※ 농기계 수출액: ('11년) 6억 달러 → ('16년) 12억 달러

○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수확 후 처리 및 가공기계 기술 개발 추진 등 3개 분야 28개 과제를 제7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 (농기계 이용률 제고) 농기계 임대 은행사업의 효과적 운영, 공동경영체 중심의 농기계 효율적 운영,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 및 대상기종 확대

- (농산식품 가공 시스템 개발) 품목별 수확 후 처리 시스템 개발, 현장 기술을 접목한 식품관련 기계 지원체계 마련

- (신기술 개발) IT·BT 융합 미래형 농기계 개발·보급, 화석연료 대체 및 에너지 절약형 농기계 개발·보급, 환경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

- (이용관리 제도 구축) 주요 농기계 의무검정 제도 도입, 농기계 효율적 관리, 농기계 안전교육 강화 및 정비·수리 지원 확대, 농기계 공제가입 지원 확대

※ 본 자료는 지난 1월 26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2011년 4/4분기 국내총생산 및 국내총소득

- 2011년 4/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4% 성장(전년 동기대비 +3.4%)
 - 농림어업은 기상여건 호조에 힘입어 재배업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6.8% 증가(전년동기대비 +4.0%)
 - 제조업은 일반기계, 운송장비 등의 부진으로 0.5% 감소(전년동기대비 +5.5%)
 - 건설업은 비주거용 건물과 토목건설의 실적이 저조하여 2.2% 감소(전년동기대비 -2.6%)
 - 서비스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이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등이 증가하면서 0.9% 성장(전년동기대비 +2.6%)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내총소득-(2005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구분	2010 ^P					2011 ^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국내총생산 (GDP)	6.2	2.1	1.4	0.6	0.5	3.6	1.3	0.9	0.8	0.4 (3.4)
농림어업	-4.3	-3.1	-2.5	-2.5	0.2	-1.0	-4.5	8.3	-6.1	6.8 (4.0)
제조업	14.8	4.2	4.0	2.3	0.1	7.1	3.1	1.4	1.4	-0.5 (5.5)
전기가스수도업	4.7	5.0	0.3	0.4	0.0	3.4	2.4	0.1	-0.4	3.4 (5.3)
건설업	-0.1	1.4	-0.1	-1.2	-3.2	-5.6	-6.1	2.6	3.5	-2.2 (-2.6)
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	3.5	1.5	0.2	0.3	1.1	2.6	1.2	0.0	0.3	0.9 (2.6)
(금융보험)	6.8	3.4	0.4	1.1	1.8	5.2	2.2	0.9	-0.4	1.9 (4.7)
(부동산및임대)	2.5	1.4	-2.3	1.7	1.4	1.5	0.8	-3.0	2.2	2.3 (2.3)
국내총소득 (GDI)	6.0	1.6	1.2	0.5	0.3	1.1	-0.3	-0.1	1.1	0.6 (1.4)
	(9.9)	(6.2)	(4.6)	(3.6)		(1.9)	(0.5)	(0.9)		

주: 1)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한편,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대비 0.6% 증가(전년동기대비 +1.4%)

□ 2011년 연간 국내총생산

○ 2011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3.6% 성장

- 지출항목별로는 수출(10.0%)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민간소비(2.2%)와 설비투자(3.8%)의 증가율이 낮아진 가운데 건설투자(-6.5%)는 감소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7.1%)이 견실하게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2.6%)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건설업(-5.6%)은 감소세 확대

○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대비 1.1% 성장

-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실질 무역손실 규모(-39.7조원 → -65.9조원)가 늘어나 GDP 성장률 하회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의 연간 성장률>

단위: 전년대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P	2011 ^P
국내총생산 (GDP)	5.2	5.1	2.3	0.3	6.2	3.6
민간소비	4.7	5.1	1.3	0.0	4.1	2.2
정부소비	6.6	5.4	4.3	5.6	3.0	2.3
설비투자	8.2	9.3	-1.0	-9.8	25.0	3.8
건설투자	0.5	1.4	-2.8	3.4	-1.4	-6.5
재고증감 ¹⁾	0.3	-0.2	0.6	-3.9	2.0	0.8
재화와서비스수출	11.4	12.6	6.6	-1.2	14.5	10.0
재화와서비스수입	11.3	11.7	4.4	-8.0	16.9	6.6
농림어업	1.5	4.0	5.6	3.2	-4.3	-1.0
제조업	8.1	7.2	2.9	-1.5	14.8	7.1
전기가스및수도업	4.1	3.8	6.2	4.1	4.7	3.4
건설업	2.2	2.6	-2.5	1.8	-0.1	-5.6
서비스업 ²⁾	4.4	5.1	2.8	1.2	3.5	2.6
국내총소득 (GDI)	3.7	4.8	-1.2	1.9	6.0	1.1

주: 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기준(%p)

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기획 정보_1

한중 FTA 논의 가시화, 첫 공식 절차 착수

※ 본 자료는 한·중 FTA 관련 간담회, 세미나, 언론 동향, 연구기관 외 외교 통상부 자료 참조

□ 안중 FTA 협상 개시 위한 국내 공식 절차 착수

-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공고를 9일 자료 관보에 올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최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2. 8일 정례브리핑)
 - 공청회는 오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 3층 홀E에서 개최될 예정
- 한·중 FTA 협상 개시와 관련, 보다 폭 넓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법정절차 이외 세미나, 토론회, 전문가 및 업종별 간담회 등 적극 추진
- 중국 측과 FTA 협상 진행방식, 협상 틀 등을 협의해 모든 절차가 완성된 시점에 **한·중 FTA 협상 시작**
- 협상 개시시점은 국내 요건 상 절차와 의견수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음.

※ 자료 출처: 외교통상부

□ 안중 FTA 진행 상황

- 한·중 FTA 경과
 - 2004년 9월 한·중 통상장관회담 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년 민간 공동연구 시작으로 2008년 6월 마지막 산관학 공동연구 5차 회의 개최하여 2010년 5월 연구 종료 선언
 - 2010년 9월 한·중 FTA 정부 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 후 2011년 4월 한·중 통상장관 회담 개최

- 한·중 FTA 추진 관련 각계 의견 수렴 활동

- (2011년) ‘한·중 FTA 추진방향’ 세미나(7.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한·중 FTA 업종별 쟁점과 대응방안 간담회(7.26, 무역협회 주최)
- (2012년) 한·중 FTA 전문가 간담회 2회(1.19/1.20, 외교통상부 주최), 한·중 FTA 협상전략 세미나(1.26,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한·중 FTA 토론회(1.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한·중 FTA 업종별 간담회(2.2, 전경련 주최), 한·중 FTA 관련 농어민 단체장 간담회(2.7, 외교통상부 주최)

※ 자료 출처: 외교통상부

□ 안중 FTA 농업분야 협상 주요 쟁점

- 농업분야는 한·중 FTA 협상개시 및 타결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이며 **양허 여부 및 범위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
- 한국은 **농산품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 소비자 선호 및 생산구조의 유사성 등으로 한국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FTA 보다 클 가능성 있음.
- 농업협상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관건
 - 한·중 FTA 산학 간 공동연구에서 중국의 입장은 협상 전에 **양허제외는 있을 수 없고, 양허제외와 같은 구체적 사항은 정식 협상에서 논의**
 - 농업의 **비교우위를 활용**해 시장개방을 획득한다는 경제적 실익추구라는 관점과 공산품 등 전체 FT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지

※ 자료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11.4)

□ 안중 FTA 추진 여론 동향-농업 측면

- 농업부문 피해 고려해 낮은 수준으로 출발, 농업 분야는 **세밀한 대책 필요**(1.31, ‘한·중 FTA 토론회’)
 - 중국의 지리적 인접·농업생산구조 유사성 등으로 인해 농산물 수입 급증 예상, 낮은 수준의 FTA로 출발하여 양허 범위의 점진적 확대 강조

- 정부 피해산업 여론 수렴 외면 반발, 농업분야가 포함된 **한·중 FTA 추진 절대 불가**, FTA 체결 후 우리 식생활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전망 제시 강조(농민단체관련자들)
- 한국 농업생산 기반 붕괴, **한·미 FTA 보다 큰 위협**(정부 발주 보고서, 2.13 경향신문 기사 인용)
 -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FTA’가 아닌 ‘제한적 FTA’형태로 추진, 협상 개시 전 민감 분야 고려한 양허수준 또는 보호장치 등에 대한 한·중 간 사전 합의 선행, 추진과정의 절차적·정당성 투명성 확보

□ 안중 FTA 추진 여론 동향-비농업 측면

-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지리적 근접성뿐만 아니라 무역장벽이 높아 FTA 체결 효과 클 것. 또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FTA 허브국가로서의 장점을 높이는 데 기여**(정인교 인하대 교수)
 - 농업개방의 폭이 넓어질 경우, 예상되는 피해가 최대 장애요인이지만 협상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협상전략 수립**
- **중국 내수 시장 진출과 상품·서비스 분야에서도 경쟁력 향상 효과 기대.** 경제적 파급 효과 클 듯(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농업 등 취약 분야 피해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지나친 우려 불필요.** 정부, 한미 FTA와 달리 2단계*로 협상 진행할 계획
 - ※ 2단계 협상: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제외 또는 유예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한 뒤 세부 분야의 본 협상 개시. 1단계 협상이 이루어져야만 2단계 협상 진행
- FTA로 한·중 간 관세 장벽을 낮추고 투자 제한 요인들을 없애 나가는 것은 **양국 경제의 효율화 측면에서 유리**, 장기적으로 자본과 지식 및 기술집약적 부문의 비교우위 강화로 **경제의 고부가가치화 촉진**(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안중 FTA 추진 여론 동향-정부

- 정부는 **농축산물 등 국내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의 보호에 대한 합의를 먼저 도출한 후 전면 협상에 들어가는** 방안 추진,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임(외교통상부).
- “미국을 비롯해 그동안 체결한 FTA 이상의 영향을 줄 것”,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볼 때 **비관세장벽의 변화는 어려울 것**”(김진수 농식품부 지역무역협정과장)
-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대비해 **철저한 논리와 협상전략에 대한 계획 수립**(유성우 지식경제부 FTA팀장)

□ 안중 FTA 대응 방안

- 농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잠식시켜 줄 만한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미 FTA의 협상기간 동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내적 논쟁을 대응**했던 경험 상기
-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보다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협상은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필요**
- 농업부문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 외에 **장기적으로 농수축산물 및 신선·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제공

※ 본 자료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합동 「2012년 경제정책 방향 “경제활력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2012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2012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토대로 공생 발전기반을 정책화하는데 중점

□ 경제활력 제고

- 우리경제가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부문별 취약요인 보완
- 보육·녹색성장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서민 자산 형성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지속성장의 토대 강화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4대 중점 추진과제

1.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대응

-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상황별 대응방안을 지속 점검하고 가계기업금융 외환 공공부문의 체질을 강화
 - (재정위기 대응)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변화의 따라 유연하게 운용
 - (부문별 취약요인 보완) 대외충격 발생 시 불안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여 사전에 시정
 - (외환)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단력적으로 운영
 - (공공) '13년 중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규율·공기업 채무관리를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병행

2. 내수활력 제고

- 국내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업·중소기업·자영업 등 내수활력을 제고
 - (투자여건 개선) 기업의 투자의욕을 증진하여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지원강화
 -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제·행정서비스 등 지원 강화

3.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 준비

- FTA 활용 극대화,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새로운 시장개척 등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 준비
 - (FTA 활용기반 강화) FTA 체결을 확대하고 활용기반을 확충하여 FTA효과를 극대화
 - (FTA 취약부문 경쟁력 제고) 농어업 등 취약부문의 직접적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병행·추진
 - (신흥시장 개척지원)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위험부담을 완화하여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유도
 - (중소기업 수출역량 확충) 금융·마케팅 등 수출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4. 미래를 위한 투자 가속화

- 보육·녹색성장 등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나눔 문화와 사회적 책임 등 사회자본 확충
 - (녹색성장 촉진) 신생 에너지 사용, 해외진출 지원 등 녹색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기후변화 등에 사전 대비
 - (신성장동력 기반 확충) 재정지원을 확대('11년 3.4→'12년 3.9조원)하고 생태계발전형 10대 프로젝트별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 (미래변화에 선제 대비) 저출산·고령화, 자원확보 경쟁 등 **미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
- (서민 자산형성 지원)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현금결제 우수기업의 **인센티브 확충**
- (글로벌 위상 제고)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등을 계기로 **개발협력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서민생활 안정

1. 생활물가 안정

- **수급안정, 경쟁촉진, 생활물가 안정에 최대한 노력**
 - (생활필품 가격 안정) 안정적인 생산여건 조성, 경쟁촉진 등을 통해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안정 유도**
 - (서비스 요금 안정) 공공요금 안정기조 유지, 가격표시제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요금 안정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시장감시 강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제수단을 도입**하고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여건 조성**
 - (주택시장 정상화) 수요여건을 감안하여 **공급물량을 조정**하고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지원

2. 청년 내일 만들기

-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시스템을 고용친화형으로 개편**
 - (청년일자리와 열린고용사회 만들기) **청년창업 활성화·채용규모 확대, 능력에 기반한 열린 고용사회 구축**을 통해 청년일자리 확충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고용인프라 강화) 일자리 예산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친화적 경제시스템 구축**

3. 교육·주거·의료 3대 생계비 경감

- **교육·주거·의료 등 생계비를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
 - (교육) **대학등록금·자녀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기관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주거) **주거비 소득공제 확대,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서민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계층별로 맞춤형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 축소**

4.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 강화

- **일하는 복지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전달체계 효율화 등으로 **맞춤형 복지 강화**
 - (일하는 복지 확충)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고용과 복지를 연계**
 - (맞춤형 복지 확대)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 추진

□ 농촌 마을외관 운영실태 및 개선 여론

- 마을회관을 **농촌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공예품과 전통 식품을 만들며 건강한 노후를 누리게 하고,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하루에 일인 당 일만 원씩받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를 볼 수 있게 하고 **농사에 대한 교육과 정보, 지역 문화와 전통, 역사를 가르치고 수강할 수 있는 곳으로 운영**했으면 함.<오인자, 제주 서귀포>
- 농촌의 마을회관은 그 마을의 상징적인 건물로 농촌 어린이 **유아방부터 경노당까지** 한지붕밑에서 다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농촌지역의 소통과 화합도 가능함. 마을회관마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농촌마을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도 필요**함.<김병철, 경남 김해>
- 농촌노인들은 거의 하루를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해결하는데 반찬이라곤 청년회나 부녀회에서 담아 준 김장김치가 전부임. 겨울 한철이라도 독거노인들이 **공동식사를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이미숙, 전남 광양>
- 기름가격이 너무나 인상되어 농어촌에서는 각 가정마다 보일러를 돌리기는 너무나 부담이됨. 따라서 **추운 겨울철만이라도 마을회관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늘렸으면 함.<김용덕, 경기 남양주>
- 연령, 성별에 알맞은 건전한 **취미활동**(바둑, 장기, 박수치며 노래하기, 윗놀이, 간단한 춤이나 스트레칭, 건강체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노령화에 따른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마을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임충빈, 경기 안성>
-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대부분 철제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고, 전기세도 난방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람.<최영호, 충남 부여>

- 우리 지역의 한 마을 회관은 방 하나로 되어 있는데 방이 너무 큰 관계로 아예 난방을 하기가 어려운 처지임. 필요에 따라 칸을 막았다가 뗄 수 있는 구조로 개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 나무 보일러도 함께 설치하여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이현순, 경남 통영>
- 마을 회관은 **지역사회의 소통과 통합을 위한 공간**으로 중요함. 그러나 아직도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곳도 있고 또 마을부지가 없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쫓겨나야할 처지에 있는 마을도 있음. 지역주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주기 바람.<박종임, 충북 괴산>
- 마을회관이 농한기에 어르신들 사랑방이 목적이라면 냉난방 시설이 우선일 것이고, **도시민의 쉼터로도 활용하려면 위생적인 시설을 고려하는 등 쓰임새와 용도에 맞는 설계와 시설로 운영**해야함.<박향숙, 전남 완도>

□ FTA와 농업개방에 대한 농촌 여론

- FTA와 그 대응책들을 관계부처에서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만이라도 순회 설명회, 관련단체별로 좌담회 등을 통해 **시행하려는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야**함.<임충빈, 경기 안성>
- 요즘 농촌에서는 FTA시대에 대비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해야할지 걱정임. 제주지역에서는 귤 감산과 함께 한라봉처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만감류 재배면적을 늘리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맛 좋고 값싼 귤을 수 십배 많이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특새농업) 정도가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임.<김상우, 제주 서귀포>
- 농촌에서는 FTA로 인해 향후 농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농심이 술렁이고 있음. 축산과 과수, 채소농가가 가격불안정과 여러 악재로 인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인의 영농의지와 농사에 대한 희망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므로 **농업인을 안심시키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부의 의지가 요망**됨.<김갑순, 경북 영양>
- 미국과의 FTA가 이미 소값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EU FTA도 본격적인 과장이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나타날지 정확한 예측도 불가하다고 봄.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FTA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니 불안감을 감출 수 없음.<김인남, 경북 상주>

□ 기타 의견

-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 필요
 - 각 지자체마다 **무분별하게 농공단지나 시설**을 허가해 **농지와 산림이 훼손**되고 있음. **국책사업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농지전용에 신중을 기해야함.**
<박종입, 충북 괴산>
- 지방 하천변 농지 침수 예방위한 잡초 제거
 - **장마 때 마다 하천변 농지에 역류현상으로 침수가 반복됨.** 원인인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려하나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개선이 필요함.<윤정임, 충북 보은>
- 농어촌 심야전기 시설 지원과 시간조절 요망
 - 정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던 **농어촌심야전기 시설 설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심야전기 시설을 원하는 농촌주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음. 어려운 농어촌 실정을 감안해 희망하는 가구는 계속적으로 **심야전기 보일러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전기사용 시간도 사용자 중심으로 조절이 필요함.**
<김병철, 경남 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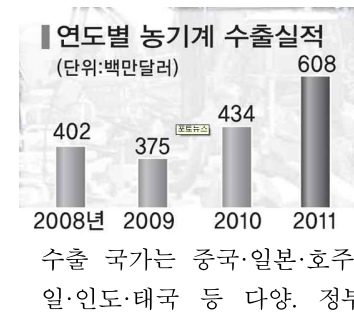
농정 여론 동향_2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지난 2월 13~15일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정책지원+수요증가...농기계 수출 '운풍'

- 최근 농식품부 발표 자료, 2011년 **농기계 수출액이 2010년에 비해 40.3%가 증가.** 국가별로 미국이 34.3%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정책적인 지원과 현지에 맞는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 추진으로 좋은 성과. 농식품부 **2015년까지 농기계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통해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활성화 방안 마련

자료: 농민신문(2012.2.13).

□ 2월 말 '한·미 FTA 발효' 전망

- 한·미 FTA를 앞두고, 수입업체 **미국산농산물 확보에 박차.** 정부가 발효시점을 2월 말로 정해 막바지 준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오렌지, 체리 등 수입업체들은 미국산 농축산물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음. 반면 농민단체들과 야당은 한·미 FTA 폐기 요구. **미국산 농축산물의 뛰어난 가격경쟁력 때문에(통상 국내산 농수축산물 가격의 50% 전후에 불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공략**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2.13).

□ 소매단계 유통비용을, 도매단계에 비해 4배 높아

- 농산물 유통 시 **소매단계의 유통비용율이 도매단계에 비해 4배 높음.**

상품가치의 유지기간·감모율로 인해 소매단계에서 많은 유통비용 발생. 유통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김윤두), 도매단계 유통비용율은 8.4%인데 반해 소매단계유통비용율은 33%로 도매단계 유통비용율의 4배에 달하고 있어 **소매단계에게 유통비용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자료: 농수축산신문(2012.2.14).

□ TPP, FTA보다 더 큰 시장개방 ‘우려’

- 일본, 미국 등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가들의 가입 선언으로 우리나라도 가입 여부 검토 예상. **후발가입국은 이미 체결된 TPP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현재 FTA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가 요구**돼 농산물 분야는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영향이 클 듯. **후발국가의 TPP가입 여부 및 일본의 협상을 지켜본 후 가입여부 결정 바람직**(최세균 농경연 부원장)

※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2015년까지 회원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무역규제,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등 무역에 있어서 각국의 장벽이 없어져 하나의 자유 무역지역화

자료: 농수축산신문(2012.2.14).

□ 발농업 직불제 시행 4월쯤...1인당 최고 200만원

- 농식품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 최근 입법예고→3월 중 **발농업 직불제 시행방안 최종 확정**→4월쯤 시행할 방침. **보리·옥수수·잡곡 등 19개 품목 대상**이며 **연말에 1ha당 40만원 보조금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5ha, 법인 20ha. 하천구역·상업지역 지정 농지·쌀 고정직불금, 조건불리 보조금, 경관보전 보조금 받는 농지 제외. **올해 발농업 직불제 대상 농지 14만 2,000ha로 추산, 관련 예산으로 624억원을 책정**

자료: 농민신문(2012.2.15).

연구 지원 정보_1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농촌관련 제도

※ 본 자료는 1월 12일 농협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정리한 것임.

□ 농업·농촌 부문

○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 FTA 이행에 따라 해당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되는 조건이 이전보다 완화됨.
- FTA 이행으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과거 5개년 평균가격대비 90%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의 90%를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으로 개선됨.

○ 발농업직불제 도입

- 한·미 FTA 피해대책의 하나로, 주요 식량작물의 지급률 향상과 발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신규도입
-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재배면적 1 ha당 연간 40만원 지급 **고소득품목이 아니면서,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품목이 대상**이 됨.
 - ※ 대상품목: 밀, 콩, 보리(걸·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 농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시행 2012.7.1)

-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제도적으로 강화됨.
- 임대차계약에서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가 제3자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범위 및 품목확대(시행 2012.1.25)

-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2011년 50개에서 2012년 61개로 확대되며, 전국시행 운영 품목이 12개 품목에서 18개 품목으로 늘어남.

○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개선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지원하는 직불제인 친환경농업제와 조건 불리지역직불제의 단가가 향상됨.

○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시행 2012.1.1)**

- 가축분뇨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량 육상처리하고 해양투기는 전면 중단됨.

○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2.5.22)**

- 쌀 가공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필요할 경우 가공용 쌀 전용재배 단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쌀 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쌀 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대한계획을 수립하게 됨.

○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2012.5.22)**

- 도시농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단체는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제공
- 지자체 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민간인은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음.

○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 2011년 처음 간척농지를 임대하면서 눈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왔으나 수도작의 짧은 임대기간 침수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선

□ **유통 부문**

○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대상의 자격 요건 강화**

- 공동선별비, 포장재비, 결구 무·배추 포장유통비 지원 대상 제한
- 공동선별비는 (기존) 공동선별 생산자 조직에서 (변경)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 중 공동선별액 15억 원 이상인 조직으로 한정

○ **구제역 백신 비용 50% 자부담(시행 2012.1.1)**

- 그간 정부가 일괄 구매·공급하던 구제역 백신을 축산농가가 50% 부담하여야 함.
- 단, 소 50 마리, 돼지 1,000 마리 이하의 농가는 자부담 의무에서 면제되어 여전히 정부 100%로 지원함.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시행 2012.1.22)**

- 김치 품질 향상과 김치 문화의 계승 및 발전, 김치 세계화 촉진 등 김치사업자에 대한 원료조달, 판로개척 등의 경영개선과 연구개발, 교육 훈련, 전문가 양성, 품평회 개최, 자조금 조성 등을 종합 지원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시행 2012.1.1)**

- 강화된 기준의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그 인증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윤리적 소비를, 축산농가에게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제공

○ **친환경 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실시(시행 2011.10.20)**

- 민간인증기관의 평가를 통해 공시된 유기농자재의 품질평가가 가능

○ **농약 판매업의 의무 등록제 도입(시행 2012.1.26)**

- 등록하지 않을 때는 일체의 인터넷, 전화 판매행위가 금지됨.

○ **농식품 공통 인증 로고 도입(시행 2012.1.1)**

- 친환경농축수산물, GAP 및 지리적표시, 우수식품 등 농식품별로 인증 표시의 형태가 다양하던 것을 하나의 형태로 통합

□ **복지 · 기타 부문**

○ **농어촌지역 보육지원 개선**

- 농어촌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늘리고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며 보육교사 급여수준을 개선함.

○ **농어민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지원 개선**

-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민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수준을 높임.

○ **동물보호법 개정(시행 2012.2.5)**

- 농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체계를 강화함.

※ 본 자료는 2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세계식량가격지수, 금년도 소폭 상승세로 출발」의 보도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 FAO 1월 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2% 소폭 상승

- FAO는 1월의 식량가격지수가 214 포인트를 기록하여 전월(210 포인트) 보다 약 2%(4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한 것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 7% 하락하였음을 발표
 - 식량가격지수: (11.7월)231 → (8월)230 → (10월)216 → (12월)210 → (1.7월)214
- 2012년도 주요 곡물 생산지역의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 악화 우려가 식량가격지수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에서 유지류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함

□ 모든 농산물의 가격 지수가 소폭 상승

- (곡물) 곡물가격지수는 전월(218 포인트)보다 2.3%(5 포인트) 상승한 223 포인트 기록
 - 쌀을 제외한 모든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상승했는데, 긴박한 국제수급 상황과 남미지역의 작황전망에 대한 우려로 잡곡(옥수수) 가격은 6% 상승했으며, 밀 가격은 옥수수 가격 상승과 러시아 수출량 감소 및 일부 중요 재배지의 불리한 기상조건에 따라 15% 상승
- (유지류) 유지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3%(6 포인트) 상승한 234 포인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 동기(279 포인트) 대비하여 낮은 수치임.
 - 팜유 및 대두유에 대한 견고한 수입 수요와 더불어 팜유의 계절적 생산량 감소 및 대두유의 수출량 감소 전망이 상승 주도
- (육류) 육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5%(1 포인트) 상승한 179 포인트를 기록
 - 돼지고기 가격은 중국의 수입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2.8% 상승하였고, 소고기

가격은 긴박한 공급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교적 높은 수준 유지

- (유제품) 유제품가격지수는 207포인트로 전월(202 포인트) 보다 2.5% 상승
 - 버터와 치즈 가격 상승이 주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미국의 유제품 재고량 감소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부족한 공급량이 최근 2개월 간 유제품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킴.
- (설탕) 설탕가격지수는 전월(327 포인트)보다 2.3%(7 포인트) 상승한 334 포인트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86 포인트) 낮은 수치
 -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의 기상 악화로 인해 수확이 지연되고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승을 이끌음.

□ 2011년도 기록적인 곡물 생산으로 껌고울 증가 전망

- FAO의 2011/12년도 곡물생산량 전망은 전월 전망치(2,322.7백만 톤) 보다 4.6백만 톤 증가한 2,327.3백만 톤으로, 이는 2010/11년도 보다 3.6% 높은 기록적인 수치임
 - 밀 생산량 6.5%(41백만 톤), 쌀 3.1%(14백만 톤), 잡곡 2.3%(26백만 톤) 증가
 - 2011/12년도 곡물소비량은 약 2,309백만 톤으로 2010/11년도 보다 1.8% 증가 예상
 - 2011/12년도 기말재고율은 22%로 5개년 평균치(21.7%)보다 약간 높은 수준

[부록]

<FAO 식량가격지수(2005~2012년)>

연도	식량가격지수	육류	유제품	곡물	유지류	설탕	
2005	117	120	135	103	104	140	
2006	127	119	128	121	112	210	
2007	159	125	212	167	169	143	
2008	200	153	220	238	225	182	
2009	157	133	142	174	150	257	
2010	185	152	200	183	194	302	
2010	6월	168	152	203	151	170	225
	7월	173	151	198	163	176	247
	8월	183	156	193	185	194	263
	9월	194	153	198	208	199	318
	10월	205	158	203	220	222	349
	11월	213	161	208	223	245	373
	12월	223	166	208	238	264	398
2011	1월	231	167	221	245	279	420
	2월	238	171	230	259	281	418
	3월	232	175	234	251	262	372
	4월	235	180	229	265	261	346
	5월	232	180	231	261	261	312
	6월	233	178	232	259	259	358
	7월	231	177	228	247	253	400
	8월	230	179	221	252	245	394
	9월	225	177	215	244	239	379
	10월	216	176	204	231	224	361
	11월	216	181	201	229	235	340
	12월	210	178	202	218	228	327
2012	1월	214	179	207	223	234	334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